

재산세·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 23일 발표 예정...재산세는 2020년으로도 가능할 듯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무계...작년 공시가 적용은 후순위

올해부터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세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서 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오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한번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

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한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

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므로 새 정부와 정책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 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고, 올해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한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2021년 수준은 물론이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종부세는 최근 2년간 증가율이 워낙 기발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보유세 부담 완화의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할지, 2021년 수준으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이자 비상대책위원인 조승천 의원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으나 공시가 발표까지 짧은 시간 안에 당내 이견 조율 절차를 마무리할지에는

의문부호가 짝혀 있다.

이에 비해 윤 당선인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앞서 공약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가 이번 주 초 정부와 보유세 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행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임박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현 정부안으로 일단 발표하도록 하고 추후 윤석열 정부 색채가 반영된 새로운 방안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리고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두고 있다. 이 방법은 올해 한 해에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재는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거론되던 개별 세법상 세 부담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항구적인 제도 개편 성격이 강해 현 상황에서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소상공인 장터 24일까지 '마켓 플라츠' 행사

(광주신세계는 오는 24일까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켓 플라츠'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전은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점포에 입점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접점 기회를 넓히고자 이 같은 기획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기존에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실내 소품과 의류 상품 등을 접할 수 있다.

유럽 등지에서 생활용품을 수입·제작하는 '메종드상드라'와 개성 있는 디자인 제품·의류를 선보이는 '질투' 등이 대표적이다.

'플라츠'는 독일어로 광장이라는 뜻을 지녔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넓은 공간에 모여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점점 기업화가 되면서 공산품 위주로 변해버린 플라마켓(벼룩시장)의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셀러(판매자)들의 소중한 프리미엄 상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송중욱(왼쪽 두 번째) 광주은행장이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타이어 금형기계 제조업체 한일종합기계(대표 이정연·오른쪽 두 번째)를 찾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무역 피해현황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중기 경영 애로 현장에서 듣는다”

송중욱 광주은행장, 일주일간 30여곳 방문 '광폭 행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해외 원자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조선업이 좀 살아야하는가 싶더니 인력난에 또 다시 허덕이네요.”

지난 8일부터 광주·전남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장정에 나선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일주일여 만에 30곳 넘게 방문했다.

송 은행장은 지난 2017년 취임한 첫해부터 6년 연속 빠지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왔다. 이번 방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급세 현황을 살피기 위해 지역 수출입 기업 비중을 늘렸다.

송 은행장이 찾은 지역기업들은 하루 7~8곳에 달했다.

광주 소촌산단의 타이어 금형기계 제조업체와 진곡산단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업체를 찾아 하루를 시작한 이후 영암 대불산단의 조선업체,

목포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하는 등 하루 이동 거리는 200km를 훌쩍 넘겼다.

지역 중소기업 사업장 뿐만 아니라 순천에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남악 전남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을 찾아 금융지원 대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공장 가동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원자재 공급난과 인력 부족에 대한 지역 산업계의 호소를 듣고 “은행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 행보의 성과 중 하나로, 전남신보는 광주은행이 특별출연한 10억원을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남 소상공인에 총 120억원의 특별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 들어서는 광주 동구·북구·서구에 각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해 소상공인 특별보증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은행이 자체 자금을 편성해 추진하는 코로

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지원은 지난 달 말 기준 2만8216건·1조2754억원에 이른다.

광주은행 옛 본점 자리인 충장로5가에 문을 연 포용금융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상담과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대부업체 등으로 발길을 돌리려만 했던 소상공인들을 1금융권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 은행장은 “지역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당연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과 함께 전진해나가며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중저민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내달 6~7일 나주서... 한전 147명 등 8곳 282명 채용 계획

올해 첫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설명회가 다음 달 6~7일 나주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4곳과 지역 27개 대학이 오는 4월6~7일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청년창업타운에서 “2022년도 지역인재 채용합동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나주 이전기관 8곳은 지역인재 282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13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달과 오는 7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한국전력은 총 842명 가운데 147명을 지역인재로 뽑는다.

한전KPS는 315명 중 62명을 지역출신으로 채용하며 ▲한전KDN 169명 중 50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명 중 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2명 중 4명 ▲한국인터넷진흥원 16명 중 5명 ▲한국콘텐츠진흥원 15명 중 5명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13명 중 4명 등을 뽑는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은 지난해 의무채용 대상 채용인원 932명 가운데 287명을 광주·전남 출신 인재로 뽑으면서 30.8%의 비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기관 130곳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34.2%(1483명)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연도 목표비율(27%)을 초과 달성한 수치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등은 신규채용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합격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채용비율 18%에서 시작해 올해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채용설명회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특강, 모의면접 실전코칭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업하는 교육과정인 ‘오픈캠퍼스’ 등의 제도도 소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역상공인 세정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정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방안 등을 안내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영암 은광학교·화순 천태초 ‘삼성 스마트스쿨’ 선정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기대

영암 은광학교와 화순 천태초등학교가 삼성전자의 “2022 삼성 스마트스쿨”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은광학교와 천태초 등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한 초등학교 8개, 특수학교 2개 등 총 10개 학교(전교생 1523명)에 “2022 삼성 스마트스쿨”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에 시작된 ‘삼성 스마트스쿨’은 도서산간 등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삼성전자의 IT 기기와 특화된 학습 솔루션·콘텐츠,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해 디지털 교육 격차

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향상시키는 CSR 프로그램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학습 콘텐츠 활용을 필요로 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춰 스마트스쿨 교실을 기존 학교당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IT 기기 지원도 확대했다.

스마트스쿨 교실에는 ▲강의식 수업을 탈피해 그룹형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삼성 플립 3대 ▲갤럭시 크롬북(2명당 1대) ▲갤럭시 탭(1명당 1대)이 구비된다.

또 프로젝트 수업, 개인별 수업 등 과목 특성에 맞게 교실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세

롭게 디자인했고, 유연한 수업환경에 최적화된 책걸상, 사물함 등도 신규로 지원했다.

수학, 영어, 과학 등 기존 교과 콘텐츠는 물론, 학생들의 디지털 정체성, 관계 및 소통,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주는 ‘디지털 시민교육’,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 학습 치료를 돕는 솔루션 ‘두브레인’ 등 다양한 전용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두브레인은 2018년 삼성전자가 외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C랩 아웃사이드’ 1기 공모전에 선발된 업체로, 삼성전자와 협력해 스마트스쿨용 전용 콘텐츠를 개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남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광주신용보증재단은 광주시 남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8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신보와 광주남구는 최근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보증 규모는 총 18억원 규모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보증에서 남구는 1년 동안 연 3%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isino.or.kr:448)에서 특별보증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일 해당지점을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로또복권 (제100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11	16	19	21	25	4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718,786,375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8,259,709	70
3	5개 숫자일치					1,433,960	2,844
4	4개 숫자일치					50,000	137,134
5	3개 숫자일치					5,000	2,256,573